

# 後短 方領半臂에 관한 고찰

홍 나 영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부교수

## A Study on Hudan Bangryung-Banbee

Na-Young Ho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 Associate Prof.

### ABSTRACT

Hudan Bangryung-Banbee was the name for a traditional dress which had a square neckline collar. Among Bangryung-Banbee, there was a particular style which, plus with the square neckline collar, had the half-length sleeve, bodice whose back length was shorter than the front. This kind of style shows a big difference from the typical pattern of traditional Korean costumes which had the V neck and had to fold the neckband of the clothes in Y-shape.

This study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change of Hudan(後短) Bangryung-Banbee style. Bangryung-Banbee of the half sleeve/shortened back style had been usually excavated around the period of the Japanese invasion of Chosun dynasty(1592-1598). And up to now this kind of the costumes was never found before the fifteenth century or after the eighteenth century in Korea.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Bangryung-Banbee was worn widely in the middle of the Chosun dynasty. However, the shape of the collar and the length of sleeve and of dress were variously used, so it must be recognized that there existed much more diverse styles of Bangryung-Banbee than it was known today.

But as the times passed away, the lined Bangryung-Banbee disappeared, and the collar of Bangryung-Banbee changed from square neckline to rounded Wonsam(圓衫) or Baeja(背子)-shape. And in the case of Bangryung-Banbee's front length, the original style disappeared, while a new style of longer back appeared.

Key Word : 방령, 반비, 후단, 원삼깃, 배자, 조선

Bangryung, Banbee, square neckline, collar, Baeja, Chosun dynasty

---

\* 이 논문은 1997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습.

## I. 서론

상고시대 이래 우리 의복은 깃이 곧은 직령형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의복중에는 심의와 출토유물에서 깃이 네모진 방령의 의복이 몇 점 발견되고 있다. 그 중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방령반비 2점은 무와 썸이 달려 있으면서 깃이 네모진 것뿐만 아니라 반소매에 앞길이 보다 뒤길이가 짧은 형태이다. 이는 우리 전통복식의 기본형이 직령형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단령포를 제외한 우리 나라 복식 대부분이 직령이며 의복의 앞 뒤 길이가 같다. 對襟형식의 경우는 원삼이나 배자에서만 앞보다 뒤길이가 긴 형식이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복식에 직령 깃이 시대에 따라서 그 형태가 변화하였듯이 방령도 시대의 추이에 따른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화여대 소장 후단 방령반비를 중심으로, 네모난 깃의 형태, 의복의 앞 뒤 길이 차이, 소매의 형태에 주목하여 시대별 특징과 변천과정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기원과 유래에 대해서는 방령반비가 가례도감의 궤 등에 보이는 胡袖로서 중국 定陵출토의 황후 상의와 유사하며, 이 의복이 송대의 貂袖→元代·鶴袖→世祖代 好袖(鶴袖)→胡袖로 변천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sup>1)</sup> 그러나 현재까지는 중국복식 중 방령을 한 의복은 보이거나 앞이 뒤보다 짧은 형식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충분한 관련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물과 문헌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찰하게 되는 것이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후단 방령반비라는 조선중기에 사용되었던 독특한 양식의 의복에 대해 살펴보고 그 변천·전개과정을 알아보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한편 이 의복의 명칭은 이화여대 박물관에서는 “남자 상의”, 단국대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에서는 “방령의”로 명명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뒤가 짧고 半袖衣인 이 의복의 특징적 형태를 알려주는 명칭으로 “후단 방령반비”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사용하였다.

깃과 여밈의 용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깃이 포개어지도록 여밈을 交領, 또는 交襟이라고 하며, 衿이라고 하는 깃이 “앞 중심에서 마주 여며지는 형태”라고도 하고<sup>2)</sup> 배자 마고자와 같이 썸이 겹쳐지지 않고 맞닿게 된 방식이라고<sup>3)</sup>도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함임이라는 용어가 원삼이나 배자와 같이 전혀 겹쳐지지 않고 마주 대하는 형이나 마고자나 방령반비 등에서 보이듯이 좁은 삼각형의 썸이 달린 것을 모두 지칭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깃과 썸이 깊이 겹쳐지는 것을 交領, 마고자나 배자와 같이 깃 부분이 마주 대하는 것은 깃에 초점을 두었을 때에는 對襟, 여밈에 초점을 두었을 때는 썸의 유무와 관계없이 깊이 여며지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함임으로 표현하였다.

## II. 方領의 정의

깃이 네모진 것을 뜻하는 한자어에는 方領과 矩領이 있다. 그러나 문헌상에 나타난 방령은 대체로 다음의 3가지 의미로 해석된다.<sup>4)</sup> 특히 방령을 직령

1) 朴聖實(1992),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세종 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pp.458-9

벽진이씨 방령 腋注音은 호수의 변형으로써 들지덜릭과 관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劉頌玉(1980), “古代 東西洋 上衣 比較研究”, 『服飾』 3호, p.44

3) 金英淑 編著(1998), 『한국복식문화사사전』, 미술문화, p.400

4) 鄭惠敬(1990), 『深衣에 관한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p.29

으로 보느냐 네모난 것으로 보느냐는 深衣의 曲袷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랐다고 할 수 있다.

① 表衣와 中衣 사이에 두르는 것으로 방심곡령과 용도는 같으면서 모양이 모진 것

張末元은 방령이 曲領과 용도가 비슷한 것으로 中衣 위에 두르는데 곡령의 형식은 굽었고 방령의 형식은 모진 것이며, 예복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특별히 만든 옷깃으로 領巾의 한 종류라 하였다.<sup>5)</sup>

② 직령과 같은 것으로, 여며 입었을 때 깃이 교차하면서 방형을 이루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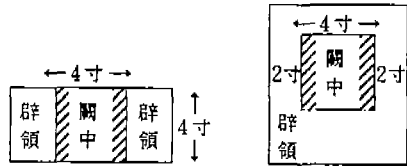
『朱子大全』에서 송대의 주자가 단순히 양 깃을 교차시켜 방형을 이루는 것을 방령이라 하고 직령의 深衣圖를 제시하므로써<sup>6)</sup> 방령은 직령의 다른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방령이란 직령을 여며 입을 때 깃이 교차되는 지점이 방형을 이루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즉 交領을 뜻하는 것이었다. 『後漢書』<sup>7)</sup>의 내용 중 “服方領 矩步者委它乎其中”의注에 “方領, 直領也”라고 한 기록에서도 방령이 직령의 다른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네모난 깃

『前漢書』列傳 중 “時愛爲去刺方領繡”에 대한注에<sup>8)</sup> 방령은 깃이 목 아래에서 정방을 이루며 곧게 내려가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 矩領 또한 『楚辭』離騷 “侘 規矩 而改錯”의注에 “方曰矩”<sup>9)</sup>라고 있고, 『禮記』의 “曲袷如矩以應方”에 대한 주에 “鄭以

漢時領皆向下交垂, 故云古者方領, 以今擁咽 故云若今小兒衣領 但方折之也”라고 하여<sup>10)</sup> 矩와 方이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sup>11)</sup>

王關仕도 중국 端衣의 네모난 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방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sup>12)</sup> 우리 나라에서도 조선 중기이후 심의를 고증하는 과정에서 방령을 네모난 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黃以周가 喪服의 활중(闕中: 闕中)과 辟領<sup>13)</sup>(그림 1)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벽령은 별도의 옷감을 가지고 활중의 주위에 놓은 것을 말한다”고 한 것이 해석의 근거가 되었다고 본다.



(그림 1) 활중과 벽령  
출처 : 谷田孝之(1970), pp.237-38

韓百謙(1552-1613)은 喪服의 活中 형태로 만든 네모난 깃을 방령이라 하고, 새로운 심의제도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심의의 형태상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방령과 대금양식이었다.<sup>14)</sup> 이 심의제도에 대하여 金長生, 서유구(徐有集)는 한백겸이 함부로 일설을 만들었다고 비난하였지만 실학자 중에는 그의 설을 지지하는 자들도 있었다. 유성원<sup>15)</sup>과 이덕

5) 金英淑(譯)(1984) 張末元(著), 『漢朝服裝圖樣資料』, 서울:민족문화사, p.36, 40

6) 『朱子大全』, 卷68, 雜書, 深衣制度 “方領 兩襟相掩衽在掖下則兩領之會自方”

7) 『後漢書』, 卷109上 儒林列傳 第六十九上

8) 『前漢書』, 卷53 列傳23 景十三王傳 廣川惠王越

“服虔曰, 如今小兒卻嬰衣也 頸下施 衿領 正方直晉灼曰 今之婦人直領也 繡爲方領上 作 黼黻文”

9) 諸橋徹次(1984), 『大漢和辭典』, 5卷 東京:大修館書店, p.8425

10) 『禮記』, 卷 39 深衣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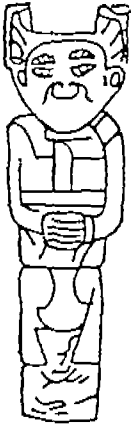
11) 金素賢(1994), 『唐時代의 胡服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pp.19-20

12) 王關仕(1977), 『儀禮服飾考辨』, 台北:文史哲出版社, pp.184-186 鄭惠敬(1990), p.29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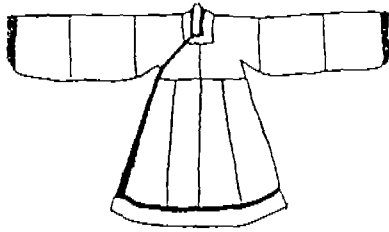
13) 谷田孝之(1970), 『中國古代喪服의 基礎的 研究』, 風間書房, pp.226-228, 237-238

14) 鄭惠敬(1990), p.78

15) 柳聲遠, 『礪溪隨錄』, 卷之 25, 續編上



(그림 2)  
西周 玉人  
출처:周錫保  
(1983), p.12



(그림 3) 조선 후기 심의  
출처:『居家雜服攷』

부<sup>16)</sup>, 이규경<sup>17)</sup>은 이것이 옛적의 심의제도에 합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것대로 하나의 옷이 되니 그런 대로 입을 만 하다고 하였다. 그 후 박규수<sup>18)</sup>와 허전<sup>19)</sup>은 형태가 약간 다른 方領의 심의를 제기하여, 한백경의 방령심의의

전통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근래에까지 전통적인 직령심의와 더불어 큰 맥을 이루며 널리 사용되었다.<sup>20)</sup>

이와 같이 방령은 고대 중국에서는 주로 직령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때로는 네모난 것도 방령이라 칭하기도 하여, 방령의 의미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깃이 네모지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유물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방령은 대금형이 대부분이나 쉼이 깊이 여머지는 교임형과 쉼이 없는 형, 쉼은 달렸지만 앞중심에서 함입을 이루는 형이 있다. 깃 모양은 L과 같이 꺾인 형인지, ▣과 같이 곧게 달린 형인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L형 : 교임 형식의 방령은 중국 서주시대의 玉彫인형(그림 2)이나 조선조 후기 심의(그림 3)에

서 찾아 볼 수 있다.

㉡ L형 : 대금 형식의 것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된 대금형의 방령반비를 비롯한 출토유물과 조선시대 金喜謙(1700-1753)의 회화 石泉閑遊<sup>21)</sup>(그림 4) 중에서 방령깃을 한 배자 모습에서 발견된다.

㉢ ▣형 : 대금형식에 직령의 목판 깃이 안으로 들어 달린 형태로 喪服이나 활옷 깃에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화여대 박물관 소장 방령반비와 같은 유형인 대금형식의 네모난 깃을 가진 의복을 대상으로 방령반비의 유형과 그 전개과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III. 출토복식을 통해본 方領의 유형

출토복식에 나타난 대금형의 깃은 그 모양이 1) 일반 목판 깃에 가까운 것, 2) "L"형으로 확연히 꺾



(그림 4) 石泉閑遊 중 배자모습  
출처:『한국의 미 20-인물화』(1985), 도 62

16)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 8, 禮記誌2, 深衣  
17) 李圭景, 『五洲衍文長箋叢稿』, 卷56, 深衣辨證說  
18) 朴珪壽, 『居家雜服攷』, 卷, 外服1  
19) 許傳, 士儀, 總目  
20) 鄭惠敬(1990), p.83  
21) 『한국의 미 20-인물화』(1985), 중앙일보사, 도 62, 63

인 모양이면서 이중 깃인 것, 3) 이중 깃이 아니면서 "L"형인 것, 4) 원삼이나 조선조말 배자 것처럼 모진 곳을 약간 등글린 것, 그리고 5) 아주 등글게 바이어스 처리한 것처럼 보이는 것 등이 있다. 본 연구는 방령에 대한 고찰이므로 그 중 1) 2) 3)의 깃모양을 편의상 A, B, C형으로 이름 짓고, 이와 비교를 위해 4) 원삼깃형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하였다.

1) A형 방령

직령깃의 등정 아래가 L자 모양으로 약간 돌출된 깃을 전 박장군 묘 출토 후단반비<sup>22)</sup>와 벽진이씨 (~1585)의 腋注플형 방령에서 볼 수 있다.

(1) 방령 腋注플

벽진이씨의 방령 腋注플(그림 5, 석주선박물관 소장)은 깃 모양이 좌우 대칭형이나 쉼 윗부분에 주름이 잡혀 있고 충분히 여며지는 것이 특징이다. 안깃도 "L"자 형으로 나온 부분에 덧단을 내어 달아 5개의 매듭단추와 고리로 앞을 여미고 나면, 실제로는 앞 중심선 전체가 약간 접쳐진 상태가 된다.

깃은 목판 깃과 비슷하고 길이가 길어 앞길 중간까지 내려와 달려 있다. 깃은 2.5cm 간격으로 누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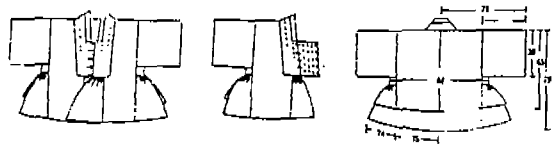
<표 2> A형 방령의 치수표

	벽진이씨 방령 액주음	전박장군 후단반비
연대	~1585	17세기 중반
재료	명주·솜	목면
소매	반소매	반소매
앞길이	79	98
앞덧길이 차	14	40
단추	5	3
뒷폭	88	52
진동	37.5	25

으며, 등정이 달려 있다. 前長後短衣로 화장에 비해 폭이 넓어 반소매처럼 보인다. 명주이며 솜을 알파하게 넣었는데 楮注紙는 사용하지 않았다. 본 유물은 묘주가 정3품 무관 折衝장군인 점이 주목된다.

(2) 傳 박장군 後短 半臂

傳 박장군(1592) 후단 반비(그림 6, 충북대박물관 소장)는 발굴 보고서 이후 "裘衣"라고 사용되어 왔으나, 재료나 구성상 구의 라는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의복의 특징을 나타낼만한 새로운 명칭을 명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



(그림 5) 벽진이씨 방령액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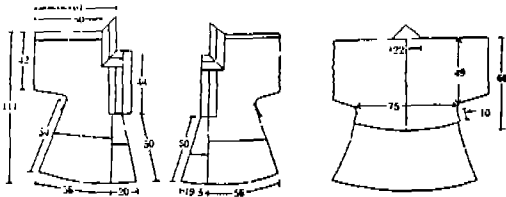
<표 1> 方領의 유형분류

A형	B형			C형		원삼 깃형
	B-1형	B-2형	B-3형	C-1형	C-2형	
벽진이씨 액주음 전 박장군 후단반비	정은 방령 신여관 방령	정응두/이대 I, II. 남이홍 방령	동래정씨 배자 I	동래 정씨 배자 II, III	김덕원 답호 반비	홍감보 반비 최숙답호/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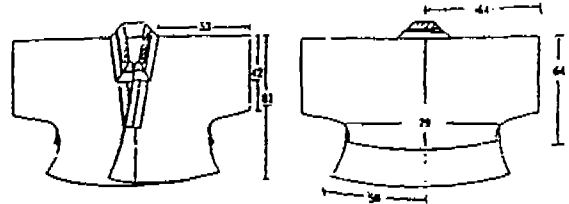
22) 전 박장군묘 출토 복식에 대하여 문화재 관리국의 보고서에는 1592년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함께 출토된 도포의 형으로 보아 17세기 중엽으로 추정하고 있다.

李恩珠(1998), 『道袍 양식의 발전에 관한 갈등·기능론 분석』, 서울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p.137





(그림 7) 정온 방령반비



(그림 8) 정응두 방령반비

겉은 운문단, 안은 명주로 만들어졌다. 1999년 5월 석주선박물관에서 전시된 신여관공의 방령만 섰 윗 부분에 벽진이씨 유물과 같은 주름이 있고, 나머지 4점 모두 같은 양식으로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네벌 모두 깃의 정교한 박음질과 매우 섬세한 상침 바느질, 그리고 좌우 길에 가로 이음 선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 파주 금릉리 출토 경주 정씨 鄭溫(그림 7, 석주선박물관 소장)과 신여관의 유물(1530년대초~1580년대)은 오른쪽 깃 아래에 앞여밈 선에 단을 덧대어 겹쳐지도록 고안되어 있으므로 B-1로 분류하였다. 5곳에 매듭단추와 고리가 달렸다.<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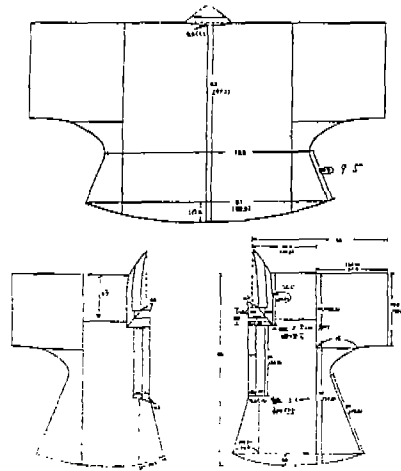
1988년 경기도 고양 군에서 발굴된 나주 정씨 정응두(1508-1572)공의 운문단 방령반비(그림 8, 석주선박물관 소장)는 이대 소장품과 같은 깃모양으로 B-2라고 하였다. 단추는 떨어졌지만 자색실의 흔적이 남아 있다.<sup>26)</sup>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소장의 방령반비 2점(그림 9)은 1982년에 입수되었으며, 경기도 여주에서 출토된 15세기의 복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발굴된 묘의 묘주가 밝혀지지 않아 그 연대가 확실치 않다. 다만 함께 출토된 철릭은 상의하상의 비율이 약 1:1.2정도로 정응두(1508-1572)와 김덕령(1596) 철릭의 중간정도<sup>27)</sup>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아 16세기의 남자복식으로 추정된다.

방령반비 I(유물번호 5602-330)은 연한 황색이고 겉은 운문단과 매우 유사하나 가로줄이 나타나는 조직의 비단, 안은 명주로 되어 있다. 방령반비 II(유물번호 5602-324)는 겉은 연한 황색의 공단, 안은 명주로 되어 있다. 墓 안에서 장기간 변색된 것으로 원래의 색상을 알기는 어렵다. 의복의 길이는 저고리 보다 길고 袍보다 짧은 중간 형태이며, 뒤가 앞보다 짧다.

의복의 형태는 2점 모두 같다. 어깨선은 없고 앞길 중간 부분을 가로로 이음선이 있으나 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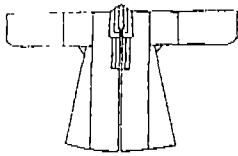


(그림 9) 이화여대 박물관 소장 방령반비 (괄호 안의 치수는 방령반비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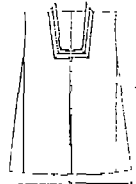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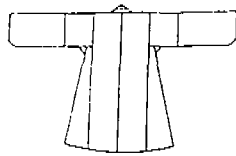
25) 『韓國服飾』 16號,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1998. 5, p.41, 『韓國服飾』 17號, 1999.5, p.78

26) 박성실, 고부자(1991. 5), “高陽 陵谷 茂院 出土 羅州 丁氏 月軒公派 出土 遺物 小考”, 『韓國服飾』, 제 9호, pp.45-84, pp.149-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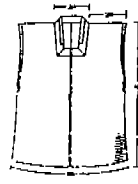
27) 홍나영(1996), “조선중엽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이황묘 출토 철릭과 창의류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0권3호, pp.527-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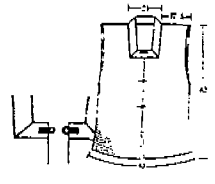
(그림 10) 남이홍장군 방령의



(그림 11)  
동래정씨배자 I



(그림 12)  
동래정씨배자 II



(그림 13)  
동래정씨배자 III

알수 없다. 무와 섶이 달려 있으며, 진동이하 양옆이 트였다. 일반적으로 섶이 있을 경우 섶위 부분에 깃이 놓이게 되고, 착용시 섶이 겹쳐지면서 교йм을 이루게 되지만 이 옷은 방령이 달린 부분과 섶 사이에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이중의 깃과 같은 나비의 선단이 들려져 있다. 방령의 모양은 이중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방형을 이루는 직각부분에는 대각선으로 박음 선이 있다. 깃 위에는 동정이 달려 있으며 세로로 세곳에 단추의 흔적이 있다. 치수를 보면, 진동의 크기는 함께 출토된 철릭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화여대의 방령반비Ⅱ(유물번호 5602-324)와 정운의 방령반비에는 섶이나 진동부분에 일부 옷감을 이은 흔적이 있다.

(2) 長袖 方領衣

B-2형 깃에 소매와 옷길이가 긴 양식의 의복은 南以興(1595) 장군<sup>28)</sup>의 방령의(그림 10, 중요민속자료 제21호)가 현재 유일한 예로 남아 있다. 이 옷은 녹피로 된 것이다. 소매와 옷 길이가 긴 것 외에 앞뒤의 길이가 같다는 것도 방령반비와 다르다. 앞을 여미는 단추가 5개이다.<sup>29)</sup> 이 방령의는 그 제도로 보아 防衣로서의 갑옷이거나 갑옷 밑에 입었던 하의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sup>30)</sup>

그러나 후단의의 용도로 흔히 마상의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조선시대의 갑옷을 고찰한 결과에 의하면 갑옷은 거의 뒷길 중심선의 허리 이하가 트여 있었다. 다만 서울대소장 鳳凰帥宇文 두정갑(18C)만 뒤가 짧은 형이 나타나므로<sup>31)</sup> 이 의복이 갑옷 밑에 입혀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증명할만한 자료가 충분치 못하므로 추후 더 관심을 갖고 고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방령 배자

소매가 없는 전형적인 배자양식에 B-2형 방령 깃을 한 의복이 동래 정씨(1574-1669)의 출토유물(그림 11, 석주선박물관 소장)에서 확인된다.<sup>32)</sup> 배자의 앞 뒤 길이는 같고 양 옆은 트였다. 조선조 말

<표 4> C형 방령의의 치수표

	동래정씨 배자Ⅱ	동래정씨 배자Ⅲ	김덕원반비	김덕원담호
연대	1574-1669	1574-1669	1634-1704	1634-1704
깃 유형	C-1	C-1	C-2	C-2
재료	명주/솜/누비	목면/솜/누비	공단/누비	명주/누비
소매	×	×	반소매	×
무	×	×	○	○
섶	×	×	○	×
앞길이	85	83	121	117
앞뒷길이차	0	0	0	0
단추	.	3	3	.
뒷품	.	.	27	25.9
진동	.	.	33.5	

28) 1576년 출생 인조 정유년에 사망 5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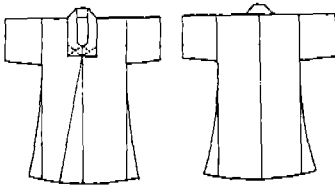
29) 劉頌玉(1982), p.272

30)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1986), p.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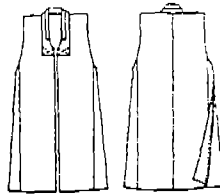
31) 李庚七(1987), 『韓國의 甲冑』,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圖 38

32) 『韓國服飾』, 8호, 19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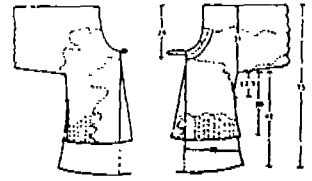




(그림 14) 김덕원 반비



(그림 15) 김덕원 답호



(그림 16) 홍감보 반비

의 배자에 비하면 훨씬 길어 엉덩이를 충분히 덮을 정도이나 조선말의 답호보다는 훨씬 짧다.

### 3) C형 방령

C형 방령은 모서리의 처리를 대각선으로 했는가 X자형으로 박았느냐에 따라 C-1, C-2로 분류하였다.

#### (1) 배자

C-1형 깃에 전형적인 배자형의 의복이 동래 정씨묘 출토 배자 3점 중 2점(그림 12, 13, 석주선박물관 소장)이다.

#### (2) 김덕원 반비

김덕원 반비(그림 14)는 걸감은 공단, 안감은 명주로 되어 있으며, 누비이다. 이 소재 공단 누비 반비는 3개의 매듭단추가 달려 있으며 양옆이 길게 트여 있다. 깃은 대입형이며 앞 목둘레를 완만한 곡선으로 하고 깃 바깥둘레선은 각지게 되어 있어 이를 C-2로 분류하였다.<sup>33)</sup>

#### (3) 김덕원 답호

이 의복(그림 15) 역시 같은 묘에서 출토된 반비와 같은 C-2형의 깃을 하고 있다. 소재의 명주로 걸감과 안감이 되어 있으며 누비이다. 대입형이며, 깃은 앞 목둘레를 둥글게 파고 깃 바깥둘레선은 각지게 놓였으며 X자형으로 곱게 박음질하였다. 등정은 백색으로 같은 길이로 달려 있어 완전히 좌우대칭

형을 이루고 있다.<sup>34)</sup> 양 옆이 길게 트여 있으며, 옷길이를 보아 袍위에 입었던 답호임에 틀림이 없다고 본다.

### 4) 원삼깃 형

원삼깃 형의 의복은 매우 많으므로 본고에서는 비슷한 연대의 원삼깃을 한 복식을 살펴보았다.

<표 5> 원삼깃을 한 의복의 치수표

	홍감보 반비	최숙 반비	최숙 답호
연대	1699-1763	1636-1698	1636-1698
깃 유형	원삼깃형	원삼깃형	원삼깃형
재료	명주	설한초/명주/누비	명주/누비
소매	반소매	반소매	×
무	×	×	×
섶	○	○	×
앞길이	73	120	119
앞깃길이 차	12	0	0
단추	끈	3	3
뒤폭	.	60	62
전등	31	32	38

#### (1) 홍감보 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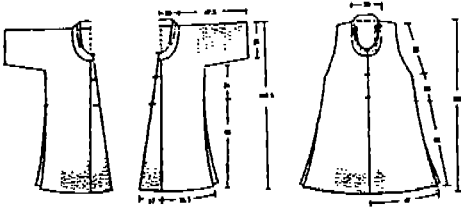
홍감보의 반비(그림 16, 석주선박물관 소장)는 조선조 말 배자에서 보이듯이 원삼모양의 깃이 달리고 단추 대신 끈으로 여미게 되어 있다. 명주로

33) 劉頌玉(1982), pp.256-257

34) 앞 글, p.281

<표 6> 후단의의 치수표

	벽진이씨 역주음	전 박장군 후단반비	정은 방령반비	정응두 방령반비	이화여대 방령반비 I	이화여대 방령반비 II
연대	~1585	1592?	1481-1538	1508-1572	?	?
깃 유형	A	A	B-1	B-2	B-2	B-2
재료	명주/솜	목면/솜	운문단/명주	운문단/명주	운문단/명주	운문단/명주
소매	반소매	반소매	반소매	반소매	반소매	반소매
무	○	○	○	○	○	○
섶	○	○	○	○	○	○
앞길이	79	98	111	81	95	84
앞뒤길이 차	14		45	17	15.6	23
단추	5	3	5	-	3	3



(그림 17) 최속 반비 (그림 18) 최속 답호

지는 누비옷이며, 앞길이 보다 뒤길이가 12cm 정도 길다. 많이 손상되어 세부 치수는 알 수 없다. 함께 출토된 의복 중 같은 깃 모양의 배자로 보이는 유물이 하나 있으나, 이 역시 너무 손상되어 깃부분만 알아 볼 수 있다.<sup>35)</sup>

(2) 崔構 반비

최속의 반비(그림 17, 석주선박물관 소장) 역시 원삼깃을 달았으며, 동정이 달려 있다. 섶이 달리고, 무가 없이 양 옆이 트인 반소매의 누비옷이다. 설한 초로 걸을 하고 명주로 안을 하였다. 단추 3개로 여미도록 되어 있다.<sup>36)</sup>

(3) 최속 답호

최속의 답호(그림 18, 석주선박물관 소장)는 그림 17의 반비와 같이 원삼깃에 단추 3으로 앞을 여미도록 한 소매 없는 옷이다. 무와 섶이 모두 없고 양옆이 트여 있다.<sup>37)</sup>

IV. 방령반비의 전개

앞에서 방령반비를 깃의 형태에 의해 분류하여 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앞 뒤 길이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뒤가 앞보다 짧은 옷을 後短衣, 앞 뒤 길이가 같은 경우를 일반형, 뒤가 긴 경우를 後長衣로 나누어 고찰한 후 그 전개과정을 유추하고자 한다.

1) 後短衣

<표 6>에서 후단의는 모두 방령 반비에서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홍계강이나 홍진종 답호(1702, 고려대 박물관 소장)<sup>38)</sup>는 소매가 없고, 바이어스와 같이 가늘고 둥근 깃에, 뒤가 앞보다 짧은 특이한 예이다.

35) 『韓國服飾』 13호, 1995.5, p.70

36) 『韓國服飾』, 14호, 1996.5, p.76

37) 앞 글, p.76

38)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1986), p.128

<표 7> 일반형의 치수표

	남이홍장군 방령의	동래정씨 배자 I	동래 정씨 배자 II	동래 정씨 배자 III	김덕원 반비	김덕원 답호	홍감보 반비	최속 반비	최속 답호
연대	1576-1627?	1574-1669	1574-1669	1574-1669	1634-1704	1634-1704	1699-1763	1636-1698	1636-1698
깃유형	B-1	B-3	C-1	C-1	C-2	C-2	D형	D형	D형
재료	가죽	소화문단/ 명주/솜	명주/솜/ 누비	목면/솜/ 누비	공단/누비	명주/누비		설한초/ 명주/누비	명주/누비
소매	긴소매	×	×	×	반소매	×	반소매	반소매	×
무	○	○	×	×	○	○	×	×	×
섬	×	×	×	×	○	×	○	○	×
앞길이	142	95	85	83	121	117	73	120	119
앞뒷길이차	0	0	0	0	0	0	12	0	0
단추	5			3	3		1	3	3

<표 8> 방령의의 전개

연도	소매	반소매 <	긴소매	>민 소매	소매					
1500년	벽진이씨 색주음 A형	신여관 방령반비 1530-1580 B-1형	정은 방령반비 1481-1538 B-1형	정응두 방령반비 1501-1572 B-2형	이화여대 방령반비 2점 B-2형	후 단 의 ↑				
1600년	전박장군 후단반비 A형			남이홍장군 방령의 1576-1627 B-2형	동래정씨 방령배자 1574-1669 B-3형	동래정씨 방령배자 1574-1669 C-1형	동래정씨 방령배자 1574-1669 C-1형	최속반비 1636-1698 원삼깃형	최속답호 1636-1698 원삼깃형	↓ 후 장 의
1700년			김덕원반비 1634-1704 C-2형		김덕원답호 1634-1704 C-2형					
1800년				홍감보반비 1699~1763 원삼깃형						

## 2) 일반형

앞뒤의 길이가 같은 형의 의복은 일반적인 의복형인 만큼 여기에서도 소매의 길이나 깃모양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특별한 규칙이 없이 다채롭게 활용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 後長衣

조선조 말의 남자 배자 대부분이 앞보다 뒤가 긴 것에 비하여, 방령반비 중에는 앞보다 뒤가 긴 의복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고찰한 복식 중에는 원삼깃을 한 홍감보의 반비만이 여기에 해당한다. 후장의 배자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양식으로 생각된다. 배자의 길이가 보다 짧아지게 된 것은 여자저고리의 단소화 현상이나 철릭의 의·상의 비율 변화와 맥을 같이 하는 조선후기 복식의 변화현상으로 판단된다.

## 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보았을 때 방령반비는 임진왜란(1592-1598) 전후 주로 출토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형식의 복식은 현재까지는 15세기 이전이나 18세기 이후의 유물에서는 나타난 바가 없다. 특히 이화여대 박물관 소장자의 방령반비는 같은 시대에 국내에서 거의 동일한 양식이 발견되고 있어 그 착용연대를 알려 주고 있다.

중국 복식 중에도 이와 비슷한 양식의 복식이 중국 정릉에서 출토된 바가 있는데, 방령반비 대금형인 것은 같으나 후단의는 아니며 더 이상의 자세한 복식의 실측도가 없으므로 세부적으로도 조선 중기의 방령과 같은 형식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중국복식 중 배자 등 대금형식의 의복도 많이 있으나 본 연구의 방령반비와 같은 후단형식의 복식을 착용한 그림은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 기원

에 있어 중국의 영향을 추정할 수 있으나, 보다 확실한 근거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방령깃도 세부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양식이 있었고, 방령 깃을 한 반비 혹은 소매가 없는 배자나 답호형이 다양하게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석주선 박물관에서 99년 5월 발표한 출토복식 중에도 이화여대 소장 방령반비와 매우 유사하면서도 넓은 벽진이씨의 腋注음과 같이 잔주름이 잡힌 후단 방령반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임진왜란전 사실상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다양한 의복이 공존했다고 본다.

다만 점차 시대가 내려올수록 철릭의 이중 깃이 사라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중 깃의 양식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깃의 모양에 있어서도 저고리의 깃이 목판 깃에서 동그래 깃으로 둥글게 변화하듯이, 각이 진 방령의 형태에서 각진 부분을 둥글린 원삼·배자형의 깃으로 바뀌었으며 後短의 양식도 점차 사라져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단의 형식을 사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馬上衣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원인이나 후단의가 사라지게 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추후의 연구결과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谷田孝之, 『中國古代喪服の基礎的研究』, 風間書房, 1970
- 2) 金素賢, 『唐時代の胡服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4
- 3) 金英淑(譯)張末元(著), 『漢朝服裝圖樣資料』, 서울:민족문화사, 1984
- 4) 金英淑 編著, 『韓國服飾文化史辭典』, 미술문화, 1998
- 5)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文化財大觀-重要民俗資料編(下)』, 1986
- 6) 朴珪壽, 『居家雜服攷』, 卷, 外服1

- 7) 朴聖實,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세종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2
- 8) 王關仕, 『儀禮服飾考辨』, 台北:文史哲出版社, 1977
- 9) 柳聲遠, 『礪溪隨錄』, 卷之 25, 續編上
- 10) 劉頌玉, “古代 東西洋 上衣 比較研究”, 『服飾』 3호, 1980
- 11) 劉頌玉, “出土服飾·男服”, 『韓國의 服飾』, 문화재관리국 문화재보호협회, 1982, pp. 253-295
- 12)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56, 深衣辨證說
- 13)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 8, 禮記臆2, 深衣
- 14) 李相玉(역저), 『新完譯 禮記』 下, 明文堂, 1985
- 15) 李恩珠(1998), 『道袍 양식의 발전에 관한 갈등·기능론 분석』, 서울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16)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特別展 圖錄(23) 『服飾-家政大學 蒐集 服飾資料를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95
- 17) 鄭惠敬, 『深衣에 관한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0
- 18) 諸橋徹次(1984), 『大漢和辭典』 5卷 東京:大修館書店
- 19)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台北:丹青圖書有限公司, 1983
- 20) 『韓國의 美 20-人物畫』(1985), 중앙일보사, 도 62, 63
- 21) 許傳, 士儀別集 卷之一, 法服篇上, 深衣制度
- 22) 홍나영, “조선중엽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이항묘 출토 침리와 창의류를 중심으로”, 『韓國衣類學會誌』, 20권3호, 1996, pp.527-537.
- 23) 『韓國服飾』, 8호, 檀國大學校 石宙善 紀念 民俗博物館, 1990. 5
- 24) 『韓國服飾』, 9호, 檀國大學校 石宙善 紀念 民俗博物館, 1991. 5
- 25) 『韓國服飾』, 13호, 檀國大學校 石宙善 紀念 民俗博物館, 1995. 5
- 26) 『韓國服飾』, 14호, 檀國大學校 石宙善 紀念 民俗博物館, 1996. 5
- 27) 『韓國服飾』, 16호, 檀國大學校 石宙善 紀念 民俗博物館, 1998. 5
- 28) 『韓國服飾』, 17호, 檀國大學校 石宙善 紀念 民俗博物館, 1999. 5